

‘20대가 바라본 사회’ 예술에 녹여낸다

청년작가 아트그룹 2002 단체전 ‘2022’

동시대 예술 변화에 대한 작가 6인의 시각 담겨 24일까지 조대 미술관

곽예상, 박재훈, 서진우, 임예림, 이정옥, 하늘푸른 등 6인으로 구성된 청년작가 그룹 ‘Art Group 2002’가 오는 24일까지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2층 미술관에서 ‘2022’ 전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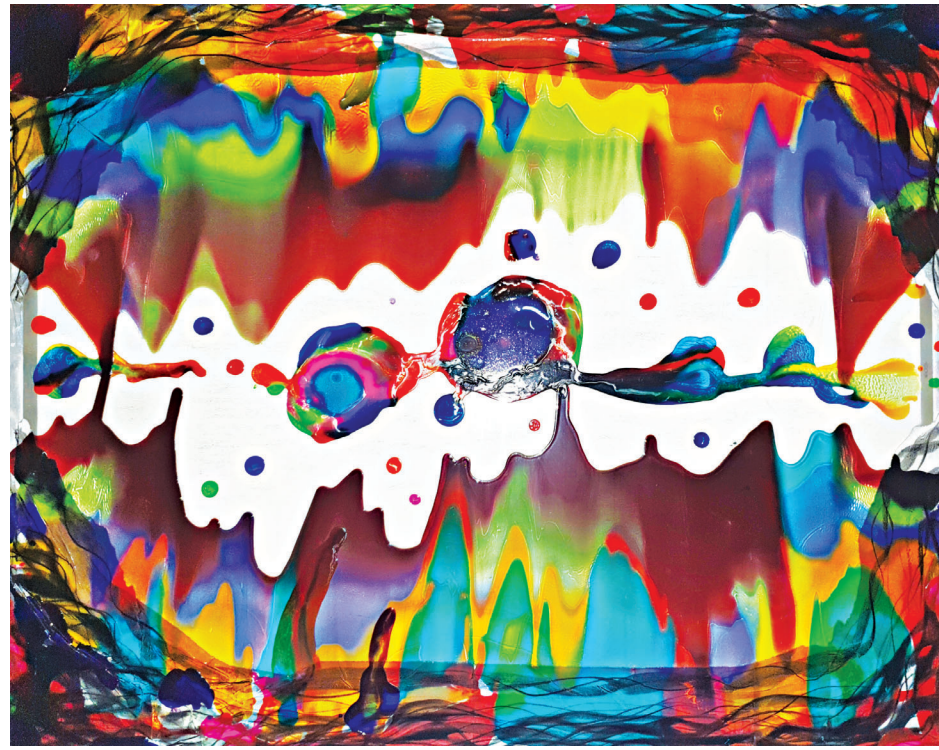
2000년 전후로 태어난 이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10~20대를 보내며 이들이 바라본 사회와 예술을 각자의 시각으로 작

품 속에 녹여낸다. ‘욕망’을 추상회화와 드로잉을 통해 그려내는 하늘푸른 작가는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을 대변하듯 화면 속에 역동하는 듯한 에너지를 분출한다. 파동 같기도, 다양한 색으로 칠해진 산수화 같기도 한 이 작품은 강렬한 색채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곽예상 작가는 흐릿한 인물들을 통해 자신이 기억하는 의식 속 추억이나 사건을 형상화하며 본질에 대한 단상에 주목한다. 같은 인물이지만 선명하게, 또는 흐릿하게 그려진 캔버스 속 인물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에 대해 질문하며 과연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서진우 작가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대면하며 스스로 느낀 불안전환을 추상회화와 설치 등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풀어낸다. 무언가 폭발하는 것 같기도, 휘둘러 지나간 것 같기도 한 그의 작품은 마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다양한 벽들과 감정들을 겪은 작가의 내면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박재훈 작가는 현대사회 속 ‘버려짐’에 주목하는데, 쓰레기 등 물질적 대상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속 의식에서 버려지는 인간들도 이에 포함시킨다. 소모되는 것들에 대한 단



하늘푸른 ‘aura of energy 1’

상을 시각화하며 사회 속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정옥 작가는 자신의 내면 속 두려움, 불가능 등을 넘어서 도전, 도약하는 순간을 추상회화로 표현하며 마치 거대한 행성 또는 포털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회화로 제시한다.

임예림 작가는 스스로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자신의 내면 속 예술이 시작된 지점이 이미지화하며 꿈, 일상, 감정 등 사소한 것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본다.

오늘날 미술계의 가장 큰 담론인 ‘동시대 속 예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작품에 담아내며 청년 세대의 다각화된 시선을 엿볼 수 있는 ‘2022’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임예림 ‘emotion confusion’

선으로 그려낸 다양한 감정

오늘 윤부열 작가 개인전 내달 6일까지 금호갤러리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윤부열 작가의 개인전 ‘시간의 선 : Time-Line’ 전시가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 2관에서 열린다.

조선대학교 회화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다양한 전시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 윤 작가는 지난 수년간 작업해 온 드로잉과 축적된 여러 작품을 가지고 이번 전시를 개최했다.

사람의 눈과 나무를 주된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삶과 가족에 대한 자신

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작품 속에 그려내며 눈을 통해 감상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물결 같기도, 가지 같기도 한 선들이 모여 완성된 그의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도 섬세한 선 작업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윤 작가는 “감정의 흐름과 시간의 연속을 드러냄에 있어 선은 처음과 끝, 지속과 단절을 담아내는 회화의 언어”라고 설명하며 한 줄의 선이 내포한 다양한 의미를 강조했다. 선 중심의 작화는 전반적인 그의 작품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추상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자신이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응원을 아끼지 않던 가족들을 작품 속에 담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윤부열 ‘시선의 선’

윤 작가는 “작품 속 눈에서는 아버지가 저에게 전해주셨던 격려와 사랑, 나무는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응원과 애정을 담았다”고 설명한 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전 내달 3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광주·전남 지역의 젊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해 진행되는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전이 내달 3일까지 2주간 열린다.

올해 23회를 맞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역의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6년간 작가들의 개성을 폭넓게 수용하고 초대전 개최, 미술전문 세미나, 국내외 문화답사, 다양한 기획전 및 프로젝트 기획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상작가들을 소개 및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접수는 내달 3일까지 광주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gallery.shinsegae.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자는 8월 중순 진행되는 ‘제23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을 통해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이번주 개봉영화

◇탐간:매버릭=최고의 파일럿 매버릭은 자신이 졸업한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탁된다. 매버릭의 지휘 아래 견고한 팀워크를 쌓아가던 팀원들에게 국경을 넘는 위험한 임무가 주어지고 매버릭은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이 될 지 모를 비행에 나선다. 조셉 코신스키 감독. 톰 크루즈, 마이클 텔러, 제니퍼 코넬리 주연. 상영시간 130분. 22일 개봉.



◇롬셰어링=새벽부터 다시 새벽까지 알바 스케줄로 꽉찬 대학생 지용은 월세를 아끼려 롬 셰어링을 신청한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것은 온갖 라인으로 꽉 채워진 집안과 까다롭고 별난 할머니 금분의 금기 사항. 그러나 갈 곳 없는 지용은 규칙들을 받아들여기로 한다. 이순성 감독. 나문희, 최우성 주연. 상영시간 93분. 22일 개봉.



◇감동주의보=감동받으면 죽는 희귀질환인 감동병을 앓는 켈링천재 보영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귄 청년 철기를 만나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맞이한다. 그러던 어느날 코피가 멈추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포기했던 켈링을 다시 도전하게 된다. 과연 보영은 감동병을 이기고 꿈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김우석 감독. 홍수아, 최웅, 기주봉 주연. 상영시간 98분. 22일 개봉.



◇모어=남모름애환을 딛고 세상 앞에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뛰어오른 독보적인 인드래그 아티스트 모어의 삶과 예술을 감각적인 음악과 영상으로 스토리텔링한 작품. ‘아 대한민국’, ‘담다디’ 등 대중가요와 뮤지션 이상의 대표곡들이 함께 스크린에 선보인다. 이일하 감독. 모지민, 존카메론 미첼, 예브게니 슈테판 주연. 상영시간 81분. 23일 개봉.



전남매일 연중 캠페인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광주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으로 평소 살던 집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